

「체불 근로자 생계비 용자」 제도 확대 여부와 수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

1. 관련 기사

- 3.4.(수) 조선비즈, “정부, 흠플러스 근로자 긴급 생계비 용자 ‘1인당 1000만원→ 2000만원 상향’ 검토”

- 정부가 임금이 체불된 흠플러스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용자 한도를 1인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전해졌다.
- 흠플러스 기업 회생 절차가 길어지거나 파산으로 이어진다면 긴급 생계비 용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.
- 긴급 생계비 용자 확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. 우선 1인당 한도를 높이는 것이다. 정부 관계자는 “현재 1000만~2000만원 빌려주는 것을 2000만~30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요구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”고 했다. 또 정부는 생계비 용자 예산 사업의 재원이 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.

2. 설명 내용

- 「체불 근로자 생계비 용자」는 임금체불로 생계가 곤란한 재직·퇴직 노동자에게 저금리(연 1.5%)로 생계비를 융자하여,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임
- 올해 예산은 706억 원으로, 전년(703억 원) 대비 소폭 확대 편성되었음
 - 다만, 지난 1월부터 임금체불이 발생한 흠플러스의 재직 노동자 중심으로 「체불 근로자 생계비 용자」를 신청하여 지원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,
 - 올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수요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가 협의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

- 다만, 「채불 근로자 생계비 용자」를 받는 지원액으로 임금채불이 청산되는 것이 아니며, 긴급한 생계 안정을 위해 노동자에게 직접 실행되는 대출의 성격을 지니므로
- 노동부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3월 중 투입 예정인 1,000억원 규모의 DIP 금융을 활용해 노동자 임금채불 청산을 최우선 순위에 두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
- 아직 제도 확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는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람

고용노동부	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	책임자	과 장	이준호	044-202-7554
		담 당	사무관	최다솜	044-202-7072
기획예산처	사회예산심의관 고용노동예산과	책임자	과 장	(공 석)	
		담 당	사무관	안재영	044-214-2511

